

베테랑 vs 혈통 금수저

라온탐맨, 최근 1년 복승률 66.7%
최고레이스, 출전마 중 1400m 으뜸
'레이팅 113' 마이티고, 연승 도전
원평가속, 유일한 4세로 가장 어려

5일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11경주로 2월 첫 1등급 경주인 1400m 레이스가 열린다. 연령과 산지에 상관없는 오픈 레이스로 12마리의 경주마들이 출전신청을 했다.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경마팬의 신임을 받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말부터 뛰어난 혈통의 금수저 말까지 출사표를 던진 출전마 중 우승후보 4두를 소개한다.

●라온탐맨 (거, 한국 6세, 레이팅 107, 승률 28.6%, 복승률 57.1%)

2022년 연도대표마 위너스맨을 배출한 머스킷맨의 자마이다. 지난해 6번 출전해 모두 순위상금을 획득 할 정도로 경기력이 꾸준하다. 또한 특정 기수를 선호하지 않고 어떤 기수든 호흡을 잘 맞추는 것도 장점이다. 최근 1년간의 전적을 보면 66.7%의 높은 복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경마팬들의 기대가 크다. 2022년 최우수 조교사로 선정된 박종곤 조교사의 관리를 받고 있다.



5일 랫츠런파크 서울 11경주로 펼쳐지는 1등급 경주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라온탐맨, 최고레이스, 마이티고, 원평가속(왼쪽부터).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최고레이스 (수, 미국, 5세, 레이팅85, 승률 23.5%, 복승률 35.3%)

마이티고와 마찬가지로 레이스데이를 부마로 두고 있다. 1월 15일 출전한 1400m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경주가 1등급 데뷔전이다. 직전 경주의 1400m 기록이 1분23초1로 이번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 가장 빠르다. 단거리를 중점적으로 출전해 왔는데 특히 1400m에서 강하다. 연승률이 77.8%일 정도로 꾸준한 능력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경주에서는 경주거리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부담중량의 이점까지 안고 있다. 1등급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지 경마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마이티고 (거, 미국 6세, 레이팅 113, 승률 35%, 복승률 50%)

레이팅이 113으로 출전마들 중 탁월하게 높다. 조부마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최고 씨수말로 꼽히는 태핏(TAPIT)이다. 2019년 데뷔 이후 일반경주에서 5연승을 거두며 1등급으로 초고속승격하며 기대를 모아왔다. 1400m만 12회 출전할 정도로 경향이 풍부한 점이 장점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줄곧 아쉬운 성적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출전한 1등급 경주에서 1분24초3으로 1위를 기록하며 우승에 대한 감증을 해설했다. 이번 경주에서도 높은 부담중량을 극복하고 우승하여 연승가도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말이다.



●원평가속(수, 한국, 4세, 레이팅84, 승률 26.7%, 복승률 66.7%)

이번 경주 출전마들 중에 유일한 4세로 가장 어렵다. 2021년 데뷔한 원평가속은 그해 문화일보배(L) 대상경주에서 2위를 차지하며 파란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대상경주보다 일반경주에서 안정적인 기량을 뽐냈다. 단거리 위주로 출전했지만 지난해 1800m 장거리에 도전해 첫 경주 우승을, 두 번째 출전에서는 2위를 기록하며 전천후 능력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1등급 데뷔전에 출전했지만 1등급의 벽을 실감하며 평소 실력보다는 주춤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에는 1등급 감자들 속에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대역전극 펼친 와우와우 “이른 우승 일렘렘”

괴력스퍼트로 생애 첫 대상경주 제패
“경험 쌓으려 출전...우승 욕심 없었다”

계묘년 첫 대상경주 우승, 이번의 주인공은 ‘와우와우’였다.

1월 29일, 랫츠런파크 서울에서 제8경주로 열린 ‘세계일보배’(L, 1200m, 국OP EN, 4세 이상)에서 서울의 와우와우(4세, 수, 한국, R66)가 멋진 역전극으로 생애 첫 대상경주 우승을 했다.

세계일보배는 2015년부터 국산마 1200m 경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경마장 오픈 경주로 전환되어 부경의 경주마도 원정출전이 가능해졌다. 올해는 부경의 해피피버 1두가 나섰다.

이날 레이스는 새해 첫 대상경주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서울과 부경의 단거리 강자 12두가 경쟁을 펼쳤다. 출발 직후 이날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라온더스퍼트가 선두를 잡으며 경주를 이끌었다. 그 뒤



2023년 첫 대상경주에서 막강한 우승후보를 물리치고 깜짝 우승을 차지한 와우와우(11번)와 송재철 기수의 마지막 결승선 질주 모습.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를 위시미, 이스트제트와 도끼블레이드가 뒤따랐다. 3~4코너를 돌면서 이스트제트가 라온더스퍼트 뒤를 바짝 쫓았다. 그런데 마지막 직선주로부터 바깥쪽의 와우와우와 장산레이저가 빠르게 치고 나오며 질주했다.

큰 기대를 받지 않던 와우와우는 순식간에 앞서가던 유력 우승후보들을 모두

따돌리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경주 기록은 1분13초7. 와우와우와 함께 외곽에서 멋진 주입을 보여준 장산레이저가 2착을 했다. 디펜딩챔피언 라온퍼스트는 3착으로 마무리했다. 기대를 모은 라온더스퍼트는 마지막에 아쉽게 밀려나며 7위에 그쳤다.

이날 와우와우와 환상의 호흡을 맞춘 송

재철 기수는 “좋은데 일렘렘하다”며 “(와우와우가) 3세 때 장거리 위주로 뛰다가 최근에 단거리로 낮추면서 오히려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 경험을 쌓아보자는 생각이었는데 3코너부터 말이 나가는 것을 보고 우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송문길 조교사는 “기수와 작전을 세울 때 우승 욕심은 내지 않았고, 잘하면 3등까지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했다. 그동안 장거리에 계속 도전하다가 빠른 레이스에서 경험을 쌓으면 2군에서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출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말도 잘 뛰어줬지만 기수도 최적의 전개를 해준 것 같다”고 기쁜 소감을 전했다.

총상금 3억 원이 걸린 ‘제21회 세계일보배’ 경주의 총매출은 약 44억원이며 배당률은 단승식 47.1배, 복승식과 쌍승식은 무려 각각 409.9배, 946배를 기록했다.

김재범 기자

머스킷맨 ‘2022 리딩사이어’ 선정

상금 휩쓴 위너스맨·라온퍼스트 부마



머스킷맨

2022년 부경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경주마는 스테이더 시리즈를 석권하고, 코리아컵 국제경주와 그랑프리 대상경주까지 우승한 위너스맨이다. 반면 서울에서 가장 돋보인 경주마는 지난해 세계일보배, 독섬배 등 대상경주를 재패했고 대통령배에서 암말 최초로 우승한 라온퍼스트일 것이다.

위너스맨과 라온퍼스트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머스킷맨이라는 씨수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점이다. 2006년 미국에서 태어난 머스킷맨은 은퇴 후 본국에서 씨수말로서 활동하다가 2016년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국내에서 태어난 자마들이 현재 각종 경주를 휩쓸고 있다. 지난해 라온퍼스트와 위너스맨이 각각 약 13억 원, 20억 원의 상금을 수확했고, 2021년 데뷔한 라온더스퍼트도 작년 서울 경주마 중 상금 순위 4위에 올랐다.

이처럼 훌륭한 자식들의 활약 덕분에 ‘머스킷맨’은 2022년 리딩사이어로 등극했다. 리딩사이어(Leading sire)란 해당 연도 최고의 씨수말이다. 자마들이 경주에서 획득한 상금을 집계하여 선정한다. 머스킷맨은 57마리의 자마가 지난 해 304회 출전해 56번의 우승을 했다. 자마들이 수확한 총상금은 64억6000여만 원이다. 2위 카우보이칼의 57억5000여만 원보다 7억 원 이상 많았다.

출전두당 평균상금도 1억1000만 원대로 다른 순위권 씨수말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머스킷맨의 교배료는 3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난해는 1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뛰었다. 교배횟수도 151번으로 가장 많았다.

김재범 기자

마사회 사업 활발...지난해 일자리 3389개 창출

한국마사회는 1월 27일 ‘2022년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마사회는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해 전사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자리위원회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경영관리 본부장, 주요 실처장 등 내부위원과 고용계, 학계, 산업계 외부위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일자리위원회에서는 한국마사회 사업으로 창출된 일자리 양과 질에 대한 평가를 했고 우수과제 13개를 선정했다. 지난해 마사회는 6261명을 지원하여 338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espe@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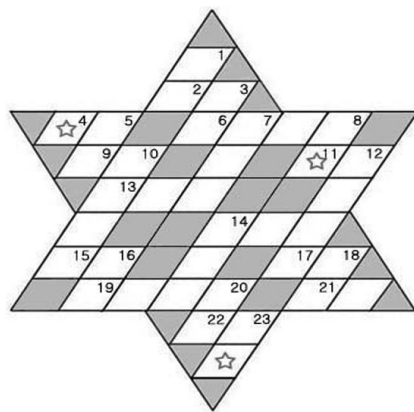
■ 스도쿠문제

		6		1		4	
7	8		5	2		1	
		4			9	5	8
8		2					6
	4					2	
	6					1	3
1		3	4			7	
	9			7	3		5
	7		2			6	

■ 스도쿠정답

1	8	9	8	6	2	5	4
7	5	2	8	2	1	8	6
6	8	4	9	5	7	8	1
8	6	1	2	7	8	4	9
4	2	8	5	9	8	1	7
9	9	7	4	1	6	2	8
8	4	5	6	8	9	7	1
9	1	8	7	2	5	6	4
2	7	6	1	8	4	9	5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2.우연히 만남. 04.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히 알림. 06.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 09.곡식을 찢거나 뺨는 기구. 11.움켜쥐고 씹어 먹음. 13.각령이 안 된

어린이의 심신 발달을 위한 교육 시설. 14.상수도에 보낼 물을 모아 두는 곳. 15.얼굴 모습. 17.고향을 그리워 함. 19.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윗대의 열사. 21.운동 경기 등에서 선수들의 힘을 북돋우는 일. 22.그물과 같이 성기게 짠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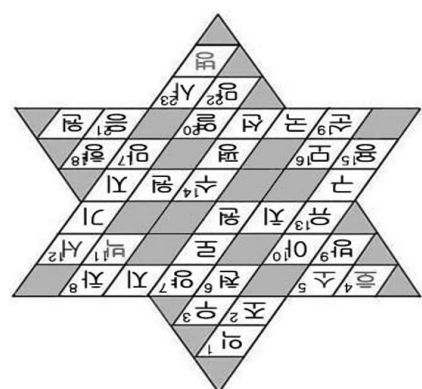
■ 세로 열쇠

01.식음·장식·해충 구제 등 사람에게 작·간접으로 유익한 새. 03.비가 오는 날씨. 05.화재를 예방하고 불난 것을 끄는 일. 07.의지할 데 없는 노인을 수용·구호하는 시설. 08.여행할 때에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머무름. 10.남에게 아첨하여 구차스레 굶. 12.거의 뭇 듯한 희망. 14.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보이는 선. 16.말이나 형

등, 사실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 18.특별히 융통하게 대접함. 20.열렬하게 바람. 23.장교가 아닌 부사관과 병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 간을 이어놓으면 스타의 이름이 됩니다.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퀴즈,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